

진도 해역 수색 작업 어선, 유조선과 충돌...인근 어선이 선원 전원 구조

관제 못하고 해경 출동 늦어... '세월호 판박이'

자동위치 발신기 작동 안해 수색선박 안전관리 부실

세월호 침몰 참사 해역 인근에서 다시 어선과 유조선이 충돌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어선에 타고 있던 11명의 선원은 인근 선박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구조됐지만 세월호 침몰 이후 그토록 강조했던 우리 사회의 안전 문화는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해역을 관할하는 진도 VTS는 선박 충돌 위험을 감지하지 못했고 사고 해역에 몰려있는 100여척의 선박 현황도, 관리나 통제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안전 불감증도 드러난 게 있었다.

◇어선과 유조선 충돌, 해경 34분만에 도착=7일 새벽 0시30분께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 남서쪽 15.3km 해역에서 여수선적

120t급 쌍끌이 어선 금창호와 406t급 유조선 유스텔라호가 충돌했다. 이날 사고로 금창호가 침몰했지만 배에 있던 선원 11명은 인근에서 달려온 어선에 의해 구조됐다. 해경은 신고를 받은 뒤 34분 만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구조 과정에서 선원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금창호는 이날 오전 9시15분 진도군 서거차도에서 출항, 수색 작업에 참여하던 중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가 충돌 사고가 났다. 어선은 24시간 뒤에 복귀할 계획이었다.

◇부실한 운항 관리 여전=선박 충돌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6일 새벽 0시 32분. 목포해경은 신고 접수 뒤 30분 이상 지난 새벽 1시6분께 현장에 도착했다. 선원들은 이미 인근 어선에 의해 구조된 뒤였다. 특히 사고 해역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실종자 수색을 위해 하루에 선박 수십

여 척이 동원돼 사고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도, 해역 내 선박 관리·통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군과 해경의 '수색 작업 구역' 외에는 자율에 맡기면서 사고 당시 가시거리가 200m에 불과할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어있음에도, 수백 척이 오가는 해역에 통제·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수색 당국 설명이다. 또 기관 고장으로 표류중인 금창호에 유조선이 접근, 충돌하는 과정에서 위험 상황을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진도VTS의 부실 관제 의혹이 다시 제기되는 형편이다. 목포해경은 금창호 내 자동위치발신기가 꺼져 있어 선박 존재 여부를 몰랐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출항 전 작동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운항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색 선박에 대한 안전 점검만 제대로 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되는 형편이다. 진도 VTS 관제자는 "사고 어선에 설치된 자동위치 발신기가 꺼져있어 관제를 하고 싶어도 해당 선박이 사고 해역에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 (우리로서) 사고 직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침몰한 금창호 선장은 "출발 때만 해도 자동위치발신기가 꺼져 있었는데 해경 쪽에서 꺼져있거나 오작동 돼 위치 감지가 안 됐다고 하니 나오기도 어찌 된 건지 답답해 죽겠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서해해경청은 진도VTS와 금창호 선장 사이 자동위치발신기 작동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관계 소홀 여부와 함께 해당 어선의 항적을 밝히기 위해 진도 VTS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오늘의 날씨

오후에 비 그쳐요
주말과 휴일 비소식은 없으나 태풍의 진로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기상정보에 관심이 필요하다.

◇지역별 날씨 (℃)

광주	비	23/31	보성	비	22/28
목포	비	23/29	순천	비	23/30
여수	비	24/27	영광	비	22/31
나주	비	22/31	진도	비	23/29
완도	비	23/30	전주	비	21/30
구례	비	21/30	군산	비	21/29
강진	비	23/30	남원	비	21/29
해남	비	23/30	흑산도	비	22/27
장성	비	22/30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안바다	북동~동	0.5~1.0	북~북동	0.5~1.5
	면바다	북동~동	1.0~2.0	북~북동	1.5~2.5
남해	안바다	북동~동	1.5~2.5	북동~동	2.0~3.0
	면바다	북동~동	2.0~4.0	북동~동	3.0~5.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1:32	05:17	23:29	17:17
여수	06:42		00:54	
	19:39		12:54	

◇주간 날씨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14(목)	15(금)
☀	☀	☀	☀	☁	☁	☁
23/31	25/31	24/31	23/31	23/28	23/28	23/29

◇생활지수

- 식중독: 54
- 운동: 10
- 빨래: 20



주민번호 대신 마이핀 7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법령 근거없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오프라인 본인확인 수단으로 마이핀 서비스가 시작돼 광주시 북구 두암2동 주민센터를 찾은 주민이 마이핀 멤버십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984년 요한 바오로 2세 광주 방문 기념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에 맞춰 제막

12일 챔피언스필드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14일)에 맞춰 30년 전인 1984년 광주를 찾아 미사를 집전, '5·18 광주항쟁'을 겪은 지역민을 위로했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기념비가 세워진다.

6일 광주시와 천주교 광주대교구 등에 따르면 재단법인 광주구천구교회 유지재단은 오는 12일 광주 가야 챔피언스 필드 주출입구 인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광주방문 기념비(사진)'를 세우고 제막식을 갖는다.

교황 요한바오로 2세는 지난 1984년 5월 '한국천주교 2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짧은 한국 방문 일정에도 광주를 방문하는 등 지역민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보였다.

당시 그는 미사를 집전, 1980년 5월 항쟁을 겪은 지역민들의 아픔을 아루만지고 위로했다. 그는 무등경기장에서 세례 성사와 견진성사를 집전, 강론을 통해 "용서란 우리의 지난한 마음보다 더 위대한 행위다. 광주 시민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진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어려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연민의 마음을 표현했다.

재단측은 애초 지난 3월 기념비를 세우



려다가 광주기독교교단협의회 측과 협의 기간이 길어지자 이번 교황 프란치스코 방한에 맞춰 세우기로 결정했다. 기념비는 높이 1.65m에 너비 1.4m로 대리석으로 만들어졌다. 기념비 맨 위에는 요한 바오로 2세가 두 손을 관세 눈을 감고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 부조 형식으로 새겨지고 아래에 요한바오로 2세의 약력, 광주 및 소록도 방문 사실, 무등경기장에서의 미사 집전 내용 등이 적혀있다.

기독교교단협의회 측은 애초 기념비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가 "교황 광주 방문 사실을 역사에 남기고 기념하자는 취지"라는 재단측 설명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천주교와 기독교 측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 기념비 설치가 가능해졌다"면서 "일정보다 늦어졌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시기에 맞춰 세워지게 돼 오히려 의미있는 행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전북교육청 전주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로 재지정 됐다. 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전북 자율학교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 연장 또는 취소에 대해 심의한 결과, 계속 운영하도록 결정했다. 상산고는 운영 성과 평가에서 80.8점을 받았다. 이는 지정 취소 기준인 70점을 10점 이상 웃돈 것이다. 또 입학전결과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의 항목에서도 '중' 이상으로 평가되는 등 특별히 지정을 취소할 사유가 없었다고 전북교육청은 덧붙였다.

이로써 올해 평가 대상인 자사고 25개교 중 서울 14곳을 제외한 지방 11곳의 평가 결과가 모두 나왔다. 지방 소재 전국단위 자사고인 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민족사관고·경북 김천고·천안 북일고·현대정운고 등은 재지정이 확정됐고, 광역단위 자사고인 대구 계성고와 부산 해운대고도 연장이 확정됐다. 하지만 안산동산고는 '미흡' 평가를 받아 재지정 취소 절차에 들어갔고, 광주 송원고는 '성적 제한 폐지'를 조건으로 재지정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부터 택시 앞좌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8일부터 신규 등록 택시는 앞좌석에 반드시 에어백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시행규칙에 택시 에어백 설치 의무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을 달지 않은 법인택시 사업자와 개인택시기사는 사업일부 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에어백 설치 규정 1차 위반 시에는 사업 일부정지 30일 처분을, 2차와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일과 90일의 사업일부정지 처분을 받는다. 에어백을 단 택시가 늘어나면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

하고 있다. 현재 택시 에어백 장착률은 조수석의 경우 8.9%에 불과해 100%에 가까운 일반 승용차보다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택시 가운데 운전석에 에어백이 있는 차량은 53.6%다. 국토부는 7~8년 정도 지나면 모든 택시 앞좌석에 에어백이 달릴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청 연구 결과 에어백을 장착하는 것만으로 사망 가능성이 1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어백 장착 차량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면 에어백이 없는 차량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보다 비교해 사망 가능성이 50% 줄어든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기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기복중알카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59만원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는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남녀기발

Advanced Partner SIEMENS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미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시흥 지멘스 상무점 약림빌딩 501호 동행(운전지정) 아바동감지법